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공주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전공기초과목 중심 -

박 남 정(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 요 약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교원양성 교육과정 기준의 부재로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질적 수월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미술교육 내부적으로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내용과 새로운 모색에 소극적인 교수방법 등으로 예비교사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미술교사의 교육력을 저하시켜 학교미술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양성대학의 전공기초과목은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이라는 분류체계에 의해 편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통적인 분류체계는 교육계에서 논의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광범위한 범주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의 전문성을 살린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학과의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교육현장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조망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미술교사 양성에 필요한 전공기초과목 분류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미국의 3개 대학과 우리나라 공주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해봄으로써 예비 미술교사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전공기초과목, 교육과정, 분류기준, 양성대학

I . 서론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이 비례한다는 보편적 논리를 인식한다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적 과제이다. 따라서 양성대학은 예비교사가 교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제반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양성대학은 이론적 지식과 교육적 실천을 결합하고 교직의 실체를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summerbosky@hanmail.net

예비 교사들에게 개념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제해야 한다. 즉 예비교사가 양성대학에서 습득하는 학문적 전문지식과 학교 교과목적 지식과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 집단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과 내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자문 교육혁신 위원회(2006)는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능력을 규정하는 〈신규 교사 자격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고시’ 형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교육현장의 요구와 유리된 교수 중심의 교육과정, 형식적인 실습, 열악한 교육 여건 등에 근거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교원양성기관의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불충분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과의 존재가치는 학과 설립 목적에 의해 규정되며 과목을 통해 완성된다. 특히 사범계열의 학과는 전문적인 예비교사를 배출함으로써 학과의 존재가치를 검증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미술교육계의 모습은 가히 낙관적이지 못하다. 양성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예비교사로서 현장에 투입될만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비단 양성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며 미술교육을 둘러싼 복합적인 외적 구조¹⁾와 내부적으로는 미술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부실과 교사교육 전문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교사로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을 미술교사 양성대학에 대한 내부적인 고찰로부터 찾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양성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기초과목의 실태를 분석하여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공기초과목을 연구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학교 미술교육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술교사가 수업 전문가로써 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양성대학의 전공기초과목은 교육학,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교육학의 이론적 범주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각 과에서 전공과목을 개설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범주이다. 엄밀히 규정하자면 교육학,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의 분류 자체는 각 학과에서 전공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마련된 개념이 아닌 ‘교육학’의 이론화 과정에서 대두된 개념인 만큼 현재로써는 전공기초과목에 대한 논의에는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교과내용학이 교과에 전문적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과교육학은 학문 분야에서의 전문성보다는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과 교과교육의 지나친 강조로 교과에 배경이 되는 전문 과학 분야에 대한 학습이 소홀해지고 이는 결국 교사의 전문적 자

1) 1970년대 이후 ‘교육과정 사회학’에서도 보여지듯이 교과에 의미는 이미 그 자체가 객관적,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간의 관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Young, 1971; 이흥구, 2003, p. 38)’이므로 과목 개설 과정에 있어서 교수진과 판단과 더불어 교육 외적인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김영석, 2008)²⁾이 양립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학계에서조차 교육학에 대한 통일된 관점이 없는 상황에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이라는 범주를 교사양성에 필요한 과목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준거에 의해 다양한 과목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공기초과목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과의 지향점과 특성이 반영된 전공과목의 부족과 과목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준의 부재는 교사양성을 위한 수준 높은 과목 개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학과의 전문성을 살린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각 과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 미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7개의 대학(한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한양대학교, 목원대학교) 중 공주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 선정 조건은 국립대학으로써 학사와 석사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대학으로 제한하였다.

연구 진행은 먼저 현대 미술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전공기초과목 분석을 위하여 공주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의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관련 과목 운영 현황을 정리한다. 그리고 미술교육과의 전공기초과목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공기초과목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그 기준에 따라 두 대학과 미국 3개 대학³⁾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술교사 양성교육을 위한 전공기초과목 발전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Ⅱ. 변화된 미술교육 패러다임

1. 미술교육의 성격

미술교육의 기본 성격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2) 오늘날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무리 없이 수용되고 있는 교과교육학의 개념은 개별 교과교육학의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교과의 배경학문들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의 교과교육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부에서 교원양성대학의 과목들을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때의 교과교육학이란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이고 교과내용학이란 교과의 내용을 구성하는 학문 분야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교원양성대학에서 가르쳐지는 학문내용은 교과교육학과는 별도의 독립된 체계를 갖춘 전문 분야들이라는 점에서 교과내용학보다는 교과배경학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김영석, 2008).

3) 노던일리노이대학교,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학교 미술 교육의 역할을 양윤정(2005)은 <표 1>과 같이 평생 학습 사회에서 문화 학습자로서 준비교육, 시각 문화 비판력과 해독력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국가 문화 산업 인력의 기본 소양 교육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 미술 교육의 방향은 교과 측면에서 ‘기초 교육의 충실’,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 ‘활용 교육의 확대’, 역사와 문화 측면에서 ‘가치 교육의 강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현된다.

〈표 1〉 학교 미술교육의 역할과 방향

역 할	방 향
평생 학습 사회에서 문화 학습자 준비 교육	기초 교육의 충실(교과 측면)
시각 문화의 비판력과 해독력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활용 교육의 확대(개인, 사회 측면)
국가 문화 산업 인력의 기초 소양 교육	가치 교육의 강화(역사, 문화 측면)

평생 학습 사회에서 문화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미술교육은 최근 지역사회와 연계시킨 커뮤니티 중심의 미술교육(CBAE, Community-Based Art Educatio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 이론(Communitarian theory)⁴⁾을 토대로 하는 CBAE는 교육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가족과 개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문화적 사회인으로서의 접근을 모색한다. 최근의 한 연구(정현일, 2009, p. 36 재인용)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가르칠 때 그들의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을 교수·학습에 반영하면 그들은 보다 더 성공적으로 민주 시민의 어른으로 자라나며, 지역 사회를 포함한 더 넓은 세계의 사회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그 변화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각 문화의 비판력과 해독력을 신장하기 위한 기본교육으로써의 미술교육은 최근 20년간 미국 미술교육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의 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40년대에서 1970년대 이전까지 미술교육을 주도했던 창조주의에 반(反)하여 등장한 DBAE는 브루너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이론적 토대로 미술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학교 미술교육과정을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 작품 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균형 있게 조화시키자는 주장은 표현중심이었던 기존의 미술교육에 큰 도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학문까지 포괄하는 미술교육을 지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교육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초·중·고의 연계성을 강조한 교육과정을 설명하였으며, 미적체험과 표현활동 전반에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미술교사의 역할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4) 공동체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개개인들은 모두 작은 커뮤니티들을 표방하며 그 개인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가족의 연결을 도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Etzioni, 1993; Selznick, 1992; 정현일, 2009, p. 37 재인용).

제7차 교육과정의 연장에서 등장한 2007 개정교육과정은 시각문화⁵⁾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매스컴의 발달, 국경 없는 국제교류 등의 세계적인 환경 변화는 국가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더 이상 단일민족, 단일국가의 개념이 아닌 다문화⁶⁾를 수용하는 차원에서의 개념으로 확장·발전되었으며 미술교육의 국가적 차원의 의미 역시 다문화와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미술교육의 성격은 시대에 변화에 조용하며 변화되고 있다.

2. 미술교사의 전문성

교육의 목표는 한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현대에 와서는 문화적 사회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교사는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교육 철학과 함께 그 시대를 대변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여 복합적 개념의 전문성으로 규정된다.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미술과 교육과정은 미적 인식 능력의 체계적인 교육, 시각 문화 환경의 교육적 활용, 통합된 경험으로서 미술 학습 제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재구성되었다(양윤정 외, 2007, p. 21). 이는 미술교육이 과거 개인의 정서와 감성 교육을 주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미술교육을 통해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안목과 인식을 길러주는 데 그 중점이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미술교사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다. 미술교사는 지식전달자의 역할이 아닌 학생들의 표현력 신장과 반성적 사고 그리고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술교사는 일단 미적인 대상을 분석하고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또한 미학적인 탐색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학적인 탐색은 미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며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들과 더불어 조형 활동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직관이다. 이것은 비단 미술교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미술의 경우는 특히 그림에 학생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림을 이해하는 것과 학생을 이해하는 것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은⁶⁾ 미술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5) 프리드먼(Freedman, 2003; 손지현, 2009, p. 47 재인용)은 시각문화를 교육과정에서 다룰 때 가능한 개념과 기술로 다음을 들었다. 사회, 상상, 관점, 해석, 정체성, 문화, 매개(mediation), 과거/현재, 형, 미디어, 탐구, 비평, 컨텍스트, 반성적 실천, 교훈(didactics)을 예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각 수준에 맞는 내용과 계열별로 심화시키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설명하였다. (중략) 예를 들어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작품을 만든다.’에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미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인식하도록 돕는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은 미술을 통해 구성되고 나타난다.’, 대학교 수준에서는 ‘미술은 개인적 양식과 문화적 배경이 담긴 개인적 진술이다.’라는 수준으로 점차 심화되어 가르쳐질 수 있다.

6) 최근에는 미국 전체교원양성 기준인정 협회(The National Council for the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NCATE)에서 우수한 교사의 육성에 필요한 4개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존 마이클(1964; 임정기·이성도·김황기, 2006 재인용)은 성공적인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의 창조성, 학생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 학생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열정과 헌신, 미술·미술교육·교육 분야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린드만(1971, 임정기·이성도·김황기, 2006 재인용)은 학생들에게 미술이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음을 교사 본인을 본보기로 삼아 알게 하고 학교 사회 안에서 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 시킬 것을 요구한다. 안희숙(2003, pp. 11-12)에 의하면 김종철(1982)은 자기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하여 넓고 깊은 지식을 들고 있고, 장석우(1990)는 우수한 일반 능력, 교과 전문성, 교수 기술 및 업무처리 능력을 들고 있다. 황정규 외(1995)는 전공교과에 관한 지식, 교육제도 등 교육에 대한 일반지식, 폭넓은 일반교양, 창의적 사고, 행정, 사무능력을 들었다. Combs(1974)는 그가 담당하는 교과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고 유용한 지식을 소유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지식,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각, 학습의 목적과 지각에 대한 정확한 지각,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한 개인적 지각 등을 들고 있고, Hessong 외(1987)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이론을 실제에 연결시키는 능력, 의사소통기술,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교육 받고 관심과 흥미가 있을 것, 역할 모델자가 될 수 있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박소영, 1990; 강성원, 1994; 김필선, 1995; 김운기, 2005; 박영주 2008, p. 194 재인용)은 미술 교사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고른 실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미술 교육과 이론에 대한 식견이 필요하다.

셋째, 가르치고자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넷째, 수업상황에 맞는 수업계획능력과 자신만의 교수법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시대흐름에 맞는 미술교육 내용과 방법을 찾아 꾸준히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3. 미술교육현장의 변화

미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현장의 교사들이다. 그들은 대학을 통해 양성된 교과 전문가로서 양성대학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인제 외(2008)에 의하면 미술교육 관련 대학교수, 현직·신규교사, 수험생 263명에게 미술교사 양성기관의 기본이수 과목 분야의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현재 16개 기본이수과목 외에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로는 현대미술(37%), 시

(Cruickshank, 1996, p. 4; 지카다 마사히로, 2004). 첫째, 교양에 관한 학습 - 만 명에게 가치가 있는 교과나 사고에 관한 학습, 둘째, 내용에 관한 학습-교사로서 담당하는 교과의 내용 및 그 교수 방법에 관한 학습, 셋째, 교직·교수법에 관한 학습-교사로서 알아둬야 할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학습, 넷째,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학습-대학의 내외의 현실사회에서 배운 것을 통합하는 현장중심의 학습.

각문화(26%)로 대다수의 의견이 나타났다. 현장의 요구는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며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양성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현장의 생각과 변화 요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09년 하계 경기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⁷⁾을 실시하였다.

첫째, 예비 미술교사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현재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셋째, 재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내용(과목)을 수강하고 싶습니까?

넷째, 현재 양성대학에서 확대해야 하는 교육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앞으로 미술교사 양성대학에 신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표 2〉는 각 질문에 대한 결과를 III장에서 논의될 전공기초과목 분류기준에 맞춰 영역별로 재분류한 결과이다. 교사들은 설문을 통해 양성대학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중견 교사로서 미술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을 교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법에 대한 요구가 많은 동시에 양성대학 교육과정에 가장 필요한 영역 역시 미술교수법이라고 답하였다. 예비교사 시절에 교육받았던 교육과정에서 교수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나 이와 관련된 실제적인 교수법 연구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양성대학에서 앞으로 확대해야 할 영역으로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용하는 교과를 선택하였다. 동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이 영역은 재교육을 통해 능력을 더욱 배양해야 할 과목과 일치하고 있어서 그들이 대학에서 예비 교사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2009 미술과 경기도 1급 정교사 대상 설문⁸⁾

영역	교과내용	순위			
		질문1	질문2	질문3	질문4
미술교수법 향상 과목	미술교수법, 미술과 학습 지도 연구, 미술교육 세미나, 미술교육사, 미술교육 평가와 측정, 미술 감상 및 평가법, 미술교재론	1	1	2	2
사회 문화적 수용 과목	영상매체와 미술 교육론, 컴퓨터와 미술 교육론, 시각매체이론, 현대미술비평	2	2	1	1
실기 및 이론 능력 향상 과목	실기 기초 실기 과목				
	이론 서양화·동양화·조소·디자인·공예 기초 지식, 조형론, 미술사, 미술비평	3	4	3	5
현장 적응력 향상 과목	교육실습 현장론, 현장교육실습(교생실습), 포트폴리오 제작방법	4	5	5	4
인접 학문 연계 과목	미술 심리학, 미술치료, 미술교육과 교육제도론, 평생교육과 미술교육론, 미술교육철학, 미학, 박물관학	5	3	4	3

7) 조사형태: 설문지/조사일시: 2009.7.28/조사대상: 교직경력 5~10년의 남녀 미술교사 68명

8) 본 설문은 연구 분석을 위한 통계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양성대학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요구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Ⅲ. 전공기초과목 분류기준

1. 교수방법 능력 향상

양성대학 미술교육과의 목표는 미술과 미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기법을 익힘으로써 전 영역에서 심도 있고 다양한 체험의 교육을 학습하며 우수한 미술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수한 교사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 교사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수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능력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교사의 전문성인 교수기술⁹⁾이다.

Foley와 Templeton(1970; 양운정 외, 2007 재인용)은 ‘장인’과 ‘전문가’라는 역할의 딜레마를 통하여 미술 교사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장인은 기술과 기법에 있어 고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반면, 전문가는 이론적 지식 체계에 기초하여 교수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즉, 미술의 기법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장인이라면 전문가는 보다 근본적으로 미술의 지식 체계 속에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적응해나가면서 그 지식에 가치와 정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술교사는 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처럼 교사들은 자신이 교육받은 미술에 대한 지식, 실기, 미술교육 이론 등을 학생들의 문화적 경험에 접목시켜 학교 미술 시간에 활용하기 위한 수업목표와 내용을 모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한 연구에(이흥구·유한구·장성모, 2003, p. 496) 의하면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기존의 교수법 시간은 교과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교과의 전체적인 개념구조나 내용 체계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기존의 교수법 시간은 오히려 교과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은 채 수업의 일반적인 절차나 모형 또는 평가 방법 등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 미술교과의 내용지식을 활용한 수업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고안하여 평가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술에 대한 인식론적·문화적인 통합적 접근과정에서 스스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학생들에게 미적인 사고와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능동적인 교수능력 즉, 교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9) 교수기술에 대해 임정기·이성도·김황기(2006)는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방법과 기술의 목표를 추출하고 내용을 선정·조직하는 기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기술, 교육의 평가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기술로 설명하고 있다.

2. 현장 적응력 향상

우리나라는 교사임용과 동시에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모든 상황이 교사 개인에게 일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선배교사의 멘토링을 통해 초임교사는 성장해가기도 하지만 학교현장의 제반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정보의 활용 능력은 양성대학에서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론서를 통한 교육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학교 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현장 실습의 내실화를 통해 가능하다. OECD(2005)¹⁰⁾에 의하면 교사 지망생을 학교 및 교실과 친숙하게 하기 위하여 실습과정, 또는 인턴제를 포함하고 있다. 상당 기간의 실습과정은 미래의 교사들로 하여금 교실 수업의 역동성과 그 기저의 원리들을 이해하도록 돕고, 신입 교사들을 ‘현실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 양성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경우 현장 실습 경험은 사범대학의 중점 과정으로 전체 교육과정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양성기간 마지막 학년에 시간제로 학교에 고용되어 예비교사가 학교 발전상황을 보다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현장 경험을 더욱 많이 받은 교사 지망생들이 주로 대학 캠퍼스에서만 제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양성된 이들에 비하여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교직에 남게 된다는 연구 보고에서(Fleener, 1998; OECD, 2005 재인용) 볼 수 있듯이 현장의 경험은 단순한 교사 개인의 경험이 아닌 교직 사회를 강고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미국 전체교원양성 기준인정 협회(NCATE)에서 제안한 우수한 교사의 육성에 필요한 요소 중 ‘통합적인 학습’(Cruickshank, 1996, p. 4; 지카다 마사히로, 2004), 즉 대학 내외의 현실사회에서 배운 것을 통합하는 현장중심의 학습은 이론적 제반 지식을 경험 속에서 통합시킴으로써 자신만의 교수법을 익히는 과정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수업에서 이루어지면서 예비교사들은 자신과 학교의 관계 학생과 교사의 관계, 교사와 교사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표출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3. 동시대 변화의 수용

사회의 변화는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도 시대마다 변한다. 변함없는 정석의 지식과 명화는 존재하지만 시대와 함께 공존하여 현실에서 담아내는

10) OECD는 ‘Teacher Matter’를 발간하면서 25개국의 배경 보고서를 근거로 분석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나라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교육실습과정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보고서(2006)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교원양성 과정을 정비하여 교육대학, 대학의 4년제 교원양성 과정, 3년의 대학과정을 마친 후 또 다시 1년간 학습하는 PGCE(Post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3가지 경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험의 지식과 문화를 읽는 힘도 필요하다(Efland; 양윤정, 2005 재인용). 동시대¹¹⁾의 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과목은 정형화된 과목이 아니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과목이다. 그러나 반면 변화가 더딘 사회에서는 그에 조용하여 모습을 갖추게 되는 가변적인 과목으로 주변 환경과 조건에 개방되는 과목이기도 하다.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과목은 변화해야 하기에 현재는 시각 문화 환경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조력해야 한다. 미술은 삶의 맥락적 관점에서 표현활동을 하고 작품을 이해하게 한다. 자신의 생활에서 가장 생동감 있는 경험이 작품으로 표현되며, 자신의 환경과 관점에 따라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또한 오늘날의 대중 매체는 매일 다양한 이미지와 담론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언어보다 이미지나 색채 등 시각에 호소하는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회화나 조각, 공예 등과 같은 전통적인 미술의 경계를 넘어 도시 공간과 건축, 조경, 광고, 사진, 패션, 영화, 텔레비전을 포함한 각종 영상물 등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문화가 공존한다. 또한 최근에 학교는 지역문화 발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성원인 교사의 사회적·문화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교사는 학생문화, 학교문화, 지역사회문화의 창조에 도움을 주는 모델로 변화되고 있으며, 미술교사는 특히 교과외 특성상 다른 교과보다 주도적 위치에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내용과 형태는 복합적인 양태로 진행될 것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예비교사는 더욱 멀티플레이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교과 전문 지식 습득

교과 전문 지식은 교사로서 수행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다. 미술교사는 교과 지식을 교수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즉 미술교사는 학생들의 미적 체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서 실기와 관련한 이론과 작품을 감상, 해석, 비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이인제 외, 2008). 가르치고자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특징을 알고 수업상황에 맞는 수업계획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교사는 미술과 관련된 제반의 이론적 지식과 미술교육에 대한 식견을 넓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영역이 바로 교과 전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미술 관련 전문 지식 함양 과목은 미술내용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미술교육 전반에 관련한 지식으로 학생들이 작품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특성에 맞추어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1) 동시대(contemporary)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시대’로, 미술계에서 사용되는 현대미술의 modern이 현대와 근대라는 두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대’라는 개념보다 시대성과 현재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한 개념으로 ‘동시대’를 사용한다.

교과 전문 지식을 다룬다는 것은 단지 미술이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및 측정, 교육과정 개발, 미술교육의 역사와 철학, 교수 공학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교과내용을 포괄하는 영역이다. 미술활동 과정은 모든 경우에서 시작과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교사는 수업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학생들의 다양하고 돌출적인 반응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교사가 감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관의 능력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과정상의 토론내용과 아이디어 등을 작품 활동에 반영하도록 조력하는 숙련된 교사의 능력이다. 어떤 수업상황에서도 교사의 피드백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교과 체험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교사는 교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5. 실기 능력 향상

미술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미술교과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미술작품의 창작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교사에게 필요한 미학적 견식이 예술의 파악에 있어 하나의 객관성을 띤 이론적인 것이라면 예술적 감각은 이에 선행되는 ‘직관’의 문제”(유덕인, 1979)에 속하기 때문에 미술교사에게 예술적 감각은 특별한 능력이 된다. 따라서 모든 영역을 고르게 지도할 수 있는 기초 실기 능력과 작품의 제작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술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미술지식, 교사 스스로 미술의 탐구방식에 관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학생들의 시각화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실천적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미술작품은 시각뿐 아니라 촉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적 경험과 조형의 요소와 원리에 의한 형식적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교사는 미술작품이 담고 있는 표현적 특성들과 특성들 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술교사가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미학, 미술사, 미술철학, 시각문화 등을 자신의 경험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은 타 교과와의 가장 큰 차별성이며 이것이 바로 미술교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시발점이다. 따라서 미술교사는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창작(실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감각체험을 할 수 있는 서양화, 동양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등의 실기 과목과 실기과목을 이해시키기 위한 전공 기초지식 습득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6. 교과 인접 학문의 이해

교사의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목표 설정에 기초를 제공하는 교육철학,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알기 위한 교육심리학, 교육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사회학(임정기·이성도·김황기, 2006)등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의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 미술로 규정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접근방식을 통해 기존의 개념적 이분법, 이를테면 순수/대중미술의 분류에 대해 새롭게 도전하며 대결적이며 상반된 관점이 아닌 다수의 관점과 가치관을 중시한다(손지현, 2009, p. 45). 이처럼 현대는 학문간 경계가 유연해지고 각 분야가 상호의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학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범교과의 통합적 이해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이는 미술을 완성하는 제반의 학문들과의 연계 속에서 생각해야하는 문제이다.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와 다른 교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학문의 핵심개념과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간학문적 접근 방식에 의한 광범위한 인접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 또한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기 위해 미술교사는 교육적·철학적 제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가르치고자 하는 학문의 기본적 개념과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학생들의 수준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김성열, 2007). 그러나 이것은 교사가 알고 있는 미술 지식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미술은 기본적으로 생활상의 통합성을 지니고 있다. 생활상의 통합은 경험의 통합의 경계를 넘어 경험을 구성해가는 각기 다른 분야의 결합으로 구성되므로 근본적으로 다른 학문과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즉 교사는 미술교육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통섭(統攝)¹²⁾의 관점에서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교수 접근법을 터득해야 한다. 미술세계의 시간적·공간적 이해는 미술 독자 학문만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없으며 인문학·자연과학 등의 지식의 통섭 단계에서 더욱 풍부해진다. 그러므로 미술교사는 미술의 탐구를 위해 다양한 학문을 도입할 수 있는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동안 여러번 논의되었던 미술사, 미학, 미술비평, 심리학, 사회학, 기호학 등의 인문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까지 포함한 학문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식을 적용하고 재해석 할 수 있어야 한다.

IV. 미술교육과 전공기초과목 분석

1. 미국 미술교육과 교육과정 분석

손지현(2009, p. 34)에 의하면 미국 미술교육협회(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는 예비

12) 에드워드 윌슨이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1998)에 처음 사용한 용어로 처음에는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뜻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소통하자’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사가 성취해야 할 기준으로 ‘미술의 내용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 개발’, ‘교수’, ‘평가’, ‘교사의 전문적 책무성’ 등 6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표 3>은 이상의 기준에 의해 구성된 노던일리노이주립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육과정이다.

<표 3>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사 자격기준에 따른 학점 이수(손지현, 2009, p. 36)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ART100 드로잉 기초	3	ART101 드로잉 기초Ⅱ	3
ART102 2D 기초	3	ART103 3D 기초	3
교양	3	ART291 미술사 I	3
교양	3	교양	3
교양	3	교양	3
계	15	교양	3
		계	18
3학기	학점	4학기	학점
ART200 생물 드로잉	3	ART342 미술교육의 기초	3
ART292 미술사Ⅱ	3	실기(스튜디오) 코스 중 택일	3
실기(스튜디오) 코스 중 택일	3	미술사 선택(300/400 단위)	3
교양(PSYC102 심리학 수업)	3	교양	3
교양(4학점 과학 수업 추천)	4	교양	3
계	16	계	15
5학기	학점	6학기	학점
ARTE344 미술교육 교재 연구와 방법	3	ARTE479 특수아동을 위한 미술교육 또는 TLSE	3
ARTE463 미술교육에서 미학, 미술사, 비평의 적용	3	ERT492 또는 ERT440 중등 평가 또는 ERT430 교육측정 평가(초등)	3
ARTE482 임상실습	2	실기(스튜디오) 코스 중 택일	3
EPS405 초중등학교에서의 성장에 관한 이슈	3	실기(스튜디오) 코스 중 택일	3
실기(스튜디오) 코스 중 택일	3	교양 다문화 교육 필수	3
실기(스튜디오) 코스 중 택일	3	교양	3
계	17	계	18
7학기	학점	8학기	학점
ARTE345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3	ARTE488A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실습	6
EPFE400 교육의 기초 또는 EPFE410 교육의 철학	3	ARTE488B 중등학교 미술과 교육실습	6
미술사 선택(300/400 단위)	3		
교양(4학점 과학 수업 추천)	4		
계	13	계	12

〈표 4〉는 미국의 오하이오주립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오하이오주립대학교는 총 28개 과목,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는 총 23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실기과목에 비해 이론과목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과목명이 교과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용어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표 4〉 Ohio State University 및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박은덕, 2004, pp. 117-118)

Ohio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교과목명	이론	실습	교과목명	이론	실습
미술교육의 역사와 철학	○		미술교육 개론	○	
미술사 교육과정 설계			학교와 문화기관의 미술교육 역사와 철학	○	
현장실습: 학교의 상황	○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수립과 응용					
현장실습: 교수법 연구					
미술 실기 지도법	○		미술경험해석: 사회적 행동적 관점	○	
미술교육의 문화적 요소	○		미술경험해석: 교육적 함의	○	
미술교육 계획 개념	○		다양성, 교육 그리고 시각적 문화	○	
특수아동	○		시각 문화와 교수 공학	○	
미술과 미학 비평론	○		시각 문화와 미술교육	○	
미술교육 평가	○		미술교육에서의 교육과정, 교육 그리고 평가	○	
1945년 이후 미술과 음악	○		미술 경험 인턴쉽		○
미술교육학 개론	○		수업을 위한 TV와 영상기술		○
입체 컴퓨터 미술 기초 기법	○		미술교육에서의 결정 과정		○
미술교육자를 위한 현대 미술 토론	○		상급 실습		○
미술교육 총론 세미나 I	○		미술교육의 역사적, 철학적 기초	○	
미술과 교육과정	○		초등학교에서의 미술	○	
예술교육의 내용과 구조	○		미술교육과정 이론과 개발	○	
예술 정책론	○		문화 기관	○	
예술론	○		문화 기관의 실습	○	
미술교육에서의 미학	○		학교와 박물관	○	
미술지도응용개론	○		개인 연구(×2)	○	
미술교육 연구	○		특별한 주제(×3)		○
집단 연구	○		-		
개인 연구		○	-		
미술교육에서의 컴퓨터		○	-		
사진 비평론		○	-		
예술과 교육에서의 컴퓨터 그래픽		○	-		
시각예술의 컴퓨터 그래픽		○	-		
미술교육 교생실습		○	-		
현장 실습		○	-		

〈표 5〉는 〈표 3〉의 노던일리노이주립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육과정을 전공기초과목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실기능력 향상 과목을 보면 ‘2D’, ‘3D’, ‘생물드로잉’ 등 과목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이슈 중 하나인 소수 계층에 대한 내용을 ‘특수아동을 위한 미술교육 또는 특수아동의 일반 학급 통합’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특징은 교양 2과목에 대해서 과학수업을 추천하는 적극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알 수 있으며 반면 교수법에 관련된 과목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다.

〈표 5〉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미술교육과 영역별 분류

분류기준	과목명 (학점)	과목수	비율(%)
실기 능력 향상 과목	드로잉기초, 드로잉기초Ⅱ, 2D기초, 3D기초, 생물드로잉, 실기(스튜디오)택일 총 6과목	11	36.67
교과전문지식 함양 과목	미술사 I, 미술사Ⅱ,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미술사 선택 총 2과목, 미술교육 교재 연구와 방법, 미술교육의 기초	7	23.33
인접 학문 연계 과목	교육의 기초 또는 교육의 철학, 교양 심리학, 미술교육에서의 미학 미술사 비평의 적용, 중등 평가 또는 평가측정, 교양(과학수업 추천) ¹³⁾ 2과목	6	20.0
현장 적응력 향상 과목	임상실습,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실습, 중등학교 미술과 교육실습	3	10.0
동시대 변화 수용 과목	특수아동을 위한 미술교육 또는 특수아동의 일반학급 통합, 초등학교에서의 성장에 관한 이슈, 교양 다문화	3	10.0
미술교수법 함양 과목	-	0	0
총 계		30	100

〈표 6〉은 〈표 4〉의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교육과정을 전공기초과목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특징은 ‘문화 기관’, ‘학교와 문화기관의 미술교육 역사와 철학’, ‘문화기관의 실습’ 등 문화기관에 관련된 과목이 3개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 미술교육 관련 자격이 주마다 달라 각 대학은 해당 주의 교사기준과 자격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고유의 특성과 문화적 성향 등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징은 ‘미술교육개론’, ‘미술경험해석: 사회적 행동적 관점’, ‘미술경험해석: 교육적 함의’, ‘미술교육의 역사적 철학적 기초’, ‘미술교육과정 이론과 개발’ 등의 과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교육을 포괄적 범주와 구체적 범주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는 점이다.

13) 우리나라 선택 교양과목과 흡사한 개념이지만 미술교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술교육과 교육과정상에서 지정하여 추천한 경우이므로 통계에 포함시켰다.

〈표 6〉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미술교육과 영역별 분류

분류기준	과목명 (학점)	과목수	비율(%)
실기 능력 향상 과목	수업을 위한 TV와 영상기술, 미술교육에서의 결정 과정, 특별한 주제(×3)	5	21.74
교과전문 지식 함양 과목	미술교육개론, 미술경험해석: 사회적 행동적 관점, 미술경험해석: 교육적 함의, 미술교육에서의 교육과정 교육 그리고 평가, 미술교육의 역사적 철학적 기초, 초등학교에서의 미술, 미술교육과정 이론과 개발, 개인연구(×2)	9	39.13
인접 학문 연계 과목	문화 기관, 학교와 문화기관의 미술교육 역사와 철학, 학교와 박물관	3	13.04
현장 적응력 향상 과목	문화 기관의 실습, 미술 경험 인턴십, 상급 실습	3	13.04
동시대 변화 수용 과목	시각 문화와 교수 공학, 시각 문화와 미술교육, 다양성 교육 그리고 시각적 문화	3	13.04
미술교수법 함양 과목	-	0	0
총 계		23	99.99

〈표 7〉은 〈표 4〉의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교육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특징은 ‘미술교육에서의 컴퓨터’, ‘사진 비평론’, ‘예술과 교육에서의 컴퓨터 그래픽’, ‘시각예술의 컴퓨터 개론’ 등 실기과목의 대부분이 동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과목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즉 ‘개인연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기존의 재현적 표현중심의 실기과목이 아닌 정보화 이미지 시대에 적합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접학문 연계과목은 ‘미술과 미학 비평론’, ‘1945년 이후 미술과 음악’, ‘예술교육의 내용과 구조’, ‘예술론’, ‘예술 정책론’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미술교육과의 연계된 학문이 개설되어 있다.

〈표 7〉 Ohio State University 미술교육과 영역별 분류

분류기준	과목명 (학점)	과목수	비율(%)
실기 능력 향상 과목	개인연구, 미술교육에서의 컴퓨터, 사진 비평론, 예술과 교육에서의 컴퓨터 그래픽, 시각예술의 컴퓨터 개론	5	17.86
교과전문 지식 함양 과목	미술교육의 역사와 철학, 미술교육의 문화적 요소, 미술교육 계획 개념, 미술교육평가, 미술교육학 개론, 입체 컴퓨터 미술 기초 기법, 미술교육 총론 세미나, 미술과 교육과정, 미술지도응용개론, 미술교육 연구, 집단연구	11	39.29
인접 학문 연계 과목	미술과 미학 비평론, 1945년 이후 미술과 음악, 예술교육의 내용과 구조, 예술론, 예술 정책론, 미술교육에서의 미학	6	21.43
현장 적응력 향상 과목	미술교육 교생실습, 현장 실습	2	7.14
동시대 변화 수용 과목	특수아동, 미술교육자를 위한 현대 미술 특론	2	7.14
미술교수법 함양 과목	미술사 교육과정 설계, 미술실기 지도법	2	7.14
총 계		28	100

2. 공주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전공기초과목 운영 현황

〈표 8〉~〈표 10〉은 공주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의 전공기초과목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술교육과 홈페이지에 탑재된 내용으로 2009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과목을 분석한 결과이다. 한 연구(박은덕, 2004, p. 115)에 의하면 2004년 기준으로 전국 6개¹⁴⁾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상대와 공주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은 교과내용학에 비해 교과교육학 과목의 비율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표 8〉을 살펴보면 필수과목은 공주대학교가 한국교원대학교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공필수 과목이 많은 것이 미술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수업내용이 질적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필수과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사양성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필수과목의 정체성과 수업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과목수를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다른 수업을 들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혹은 주 단위로 학교마다 통일된 학교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장상호, 2007, p. 44). 인간이 이룩한 수많은 자산 중에서 극히 일부의 내용만이 학교에서 과목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 과목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나름대로 위계를 이루어 수업시수의 배당 과정에 반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와 결정과 선택에는 학과 외의 복합적인 환경에 의해 그 고유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표 8〉 2009학년도 미술교육과 전공기초과목 개설 현황¹⁵⁾

분류		한국교원대학교 개설 과목수	공주대학교 개설 과목수
교과 교육학	필수	2과목	1과목
	선택	2과목	4과목
교과 내용학	필수	11과목	15과목
	선택	26과목	30과목
교생실습		2과목	2과목
총 계		43과목	52과목

출처: 공주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홈페이지

〈표 9〉와 같이 한국교원대학교는 전체 43개의 전공기초 과목 중 실기 과목(실기위주 과목

14)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교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

15) 본 연구의 목적상 교과교육학 · 교육내용학의 과목명은 ‘3. 분류 준거에 의한 과목 분석(pp. 20-22)’에서 전공기초과목 분류기준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두 대학 모두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과에 해당되지 않는 현장실습 과목은 제외시켰다.

포함)과 이론과목(이론위주 과목 포함)의 비율은 각각 65.51%와 30.23%이고, 공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총 52개의 전공기초 과목 중 70.0%의 실기 과목과 21.21%의 이론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이론과목에 비해 실기과목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은 현재 미술교육과의 교수인적 자원의 전공이 대부분 교과내용학 즉, 실기(표현)를 전공한 교수들로 편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론수업이 실기수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표 9〉 2009학년도 미술교육과 이론 및 실기 기초과목 비중¹⁶⁾

수업내용	한국교원대학교			공주대학교		
	개설 과목수	비율(%)		개설 과목수	비율(%)	
실기	11	28	65.12	39	39	75.0
실기위주	17			0		
이론	13	13	30.23	11	11	21.15
이론위주	0			0		
교생실습	2	2	4.65	2	2	3.85
총 계	43과목		100%	52과목		100%

출처: 공주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홈페이지

〈표 10〉 실기 및 이론 과목 분류

영역	한국교원대학교	공주대학교
실기 과목	소묘 I II, 입체조형실습 I II, 평면조형실습 I II, 기초동양화 I II, 기초조소 I, 기초디자인 I, 재료기법, 수채화, 수채화II, 드로잉 I II, 서예 I, 서예II, 산업디자인 I, 디자인실기 I II, 조소실기 I II, 동양화실기II, 서양화실기 II, 현대서양화 I, 공예, 석조, 채색화 *교생 실습(1), 교생실습(2)	기초수묵화기법, 기초수채화기법, 기초조소기법, 기초디자인기법, 한국화기법 I II, 서양화기법 I II, 조소기법 I II, 디자인기법 I II, 서예, 판화표현기법, 한국화 I II III IV, 서양화 I II III IV, 조소 I II III IV, 시각디자인 I II III IV, 한국화연구, 서양화연구, 조소연구, 디자인연구, 만화영상 표현기법, 한국화지도법, 서양화지도법, 입체조형지도법, 정보디자인지도법 *교생실습(1), 교생실습(2)
이론 과목	미술교육론, 미술교재론, 미술교육연구,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색채학, 디자인론, 조형론, 회화론, 미술교수법, 현대미술론, 미술해부학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 미술과 교육론, 디자인론, 색채학, 미술과 교육과정 및 평가,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론, 현대미술론, 미술교육과 논술, 미학

출처: 공주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홈페이지

16) 학교 홈페이지의 강의계획서와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두로 조사하였다.

3. 공주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과목 분석

가. 교과 전문 지식 함양 과목

〈표 11〉을 살펴보면 교과 전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은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미술교육론, 미술교재론, 미술교육연구 등 10개 과목으로 전체 중 23.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주대학교는 7과목으로 13.46%에 해당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표 11〉 2009학년도 교과 전문 지식 함양 과목

영역	한국교원대학교 (N=43)	공주대학교 (N=52)
과목명 (학점)	미술교육론(3), 미술교재론(3), 미술교육연구(3), 서양미술사(2), 한국미술사(2), 동양미술사(2), 색채학(2), 디자인론(2), 조형론(2), 회화론(2)	한국미술사(3), 서양미술사(3), 동양미술사(2), 미술과 교육론(3), 디자인론(2), 색채학(1), 미술과 교육과정 및 평가(2)
과목수(비율 ¹⁷⁾)	10과목(23.26%)	7과목(13.46%)

나. 실기 능력 향상 과목

〈표 12〉에 의하면 공주대학교는 서양화, 한국화, 디자인, 조소, 수묵화, 수채화, 서예 등 가장 기본적인 실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교원대학교는 공주대학교에 비해 입체조형, 평면조형, 산업디자인, 석조, 공예, 드로잉 등 조금 더 세부적인 실기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2009학년도 실기 능력 향상 과목

영역	한국교원대학교 (N=43)	공주대학교 (N=52)
과목명 (학점)	소묘 I II(각2), 입체조형실습 I II(각2), 평면조형실습 I II(각2), 기초동양화 I II(각2), 기초조소 I(2), 기초디자인 I(2), 재료기법(1), 수채화(1), 수채화II(1), 드로잉 I II(각1), 서예 I II(각2), 산업디자인 I(2), 디자인실기 I II(각3), 조소실기 I II(각3), 동양화실기II(3), 서양화실기II(3), 현대서양화 I(2), 공예(2), 석조(2), 채색화(2)	기초수묵화기법(1), 기초수채화기법(1), 기초조소기법(1), 기초디자인기법(1), 한국화기법 I(1), 한국화기법II(2), 서양화기법 I II(각2), 조소기법 I II(각2), 디자인기법 I II(각2), 서예(1), 판화표현기법(2), 한국화 I II III IV(각2), 서양화 I II III IV(각2), 조소 I II III IV(각2), 시각디자인 I II III IV(각2), 한국화연구(2), 서양화연구(2), 조소연구(2), 디자인연구(2)
과목수(비율)	28과목(65.12%)	34과목(65.39%)

17) 교과교육학 · 교육내용학에 현장실습을 합산하여 한국교원대학교는 총 43과목, 공주대학교는 52과목으로 산출한 비율

다. 미술교수법 함양 과목

교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배운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교수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극대화하여 진정한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표 13>에 의하면 한국교원대학교는 교수법을 함양하기 위해 미술교수법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공주대학교의 경우는 전공영역별로 지도법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표 13> 2009학년도 미술교수법 함양 과목

영역	한국교원대학교 (N=43)	공주대학교 (N=52)
과목명 (학점)	미술교수법(3)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론(3), 한국화지도법(2), 서양화지도법(2), 입체조형지도법(2), 정보디자인지도법(2)
과목수(비율)	1과목(2.44%)	5과목(9.83%)

라. 동시대 변화 수용 과목

<표 14>에 의하면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담아내고 있는 과목의 경우 공주대학교는 3과목, 한국교원대학교는 1개에 불과하다. 현대미술론의 경우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목이기 보다는 현대미술에 대한 원론적 이론 수업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두 학교의 전공과목에서 학생들의 변화된 감각을 능동적으로 담아 안아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표 14> 2009학년도 동시대 변화 수용 과목

영역	한국교원대학교 (N=43)	공주대학교 (N=52)
과목명(학점)	현대미술론(2)	현대미술론(2), 미술교육과 논술(2), 만화영상표현기법(2)
과목수(비율)	1과목(2.33%)	3과목(3.85%)

마. 현장 적응력 향상 과목

현재 두 학교의 현장실습은 3학년과 4학년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교사는 교수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 업무와 상담업무, 담임교사 업무 등의 광범위한 교육활동에 투입되므로 교생실습을 나가기에 앞서 양성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4주에 걸친 짧은 실습기간에 현장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인만큼 예비 교사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행정업무, 담임교사업무 등을 습득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5〉 2009학년도 현장 적응력 향상 과목

영역	한국교원대학교 (N=43)	공주대학교 (N=52)
과목명(학점)	교생실습(1), 교생실습(2)	교생실습(1), 교생실습(2)
과목수(비율)	2과목(4.65%)	2과목(3.85%)

바. 인접 학문 관련 교과

과목 배경과 관련된 내용은 미술교과를 이해하는 이론적·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표 16〉과 같이 한국교원대학교는 2학점의 미술해부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공주대학교는 미학이 2학점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교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접학문 과목이 미흡하다.

〈표 16〉 2009학년도 인접 학문 연계과목

영역	한국교원대학교 (N=43)	공주대학교 (N=52)
과목명(학점)	미술해부학(2)	미학(2)
과목수(비율)	1과목(2.33%)	1과목(1.92%)

V. 미술교육과 전공기초과목 내실화 방안

1.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과목 개설 기준 마련

현재 우리나라는 졸업학점에 대한 국가수준의 기준은 있지만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여 각 양성대학마다 자체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해 형식적인 김정절차만을 거쳐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양성대학의 미술교육과 역시 질적·양적으로 완성도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예비교사들을 배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학문적 성장 과정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나 교사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의 부재는 교수력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신뢰할만한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모델이 전무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이 교육학,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의 분류만으로 미술교사가 되기 위한 수많은 영역을 체계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손지현(2009, p. 34)에 의하면 미국 미술 교육 협회(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는 미국의 교사 양성 기준(Standards for Art Teacher Preparation)을 1999년에 처음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미술교사양성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의 책무성에 대한 기준, 예비 미술교

사가 가져야 하는 능력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과목 개설이 통일된 기준에 의해 구성되어야만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질적 수월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및 과목개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외적인 변수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둘째,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교육하는 교사의 상(象)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정립하기 위함이다. 셋째, 대학 간의 학문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예비교사의 질적·양적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2. 분류기준에 따른 영역별 배분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6가지 분류기준의 영역은 그 존재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교과전문 지식 향상과목’과 ‘실기 능력향상 과목’은 다른 4가지 기준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목을 개설할 때는 총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영역별 비중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화롭게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되어야 하며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을 구분하는 기준 역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7〉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학에 비해 우리나라 두 대학의 실기능력 향상 과목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현장 적응력 배양 과목과 인접 학문 연계 과목의 비중이 월등히 낮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예술대학과 사범대학의 위상 정립 과정에서 표출된 특수한 현상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결과로 이제는 각 대학의 역할을 정립하여 정체성을 도모해야 한다. 〈표 17〉은 이후 과목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표 17〉 5개 대학 전공기초과목 개설 과목수 비교¹⁸⁾

영역	전체 과목수에 따른 영역별 비율 (%)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노던일리노이대학교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교과 전문 지식 향상 과목	13.46	23.26	23.33	39.29	39.13
실기 능력 향상 과목	65.39	65.12	36.67	17.86	21.74
미술교수법 향상 과목	9.62	2.33	0	7.14	0
동시대 변화 수용 과목	3.85	2.33	10.00	7.14	13.04
현장 적응력 배양 과목	3.85	4.65	10.00	7.14	13.04
인접 학문 연계 과목	1.92	2.44	20.00	21.43	13.04

18)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 과목을 분류기준에 따른 영역별 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한국교원대학교 52과목, 공주대학교 43과목,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30과목, Ohio State University 28과목,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3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의 효율적 분배

미술교육과는 학교 현장에서 미술을 교육할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표 9>와 같이 실기 중심의 교과내용학에 비중을 두고 있다. 물론 교과교육학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미술교사 양성기관에서 교과교육학 전공자가 교수로 충원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김영석(2008)은 현재의 구조에서 교과교육학은 단순히 정해진 교과의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을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학문이나 생활 경험에서 추출된 교과의 내용들을 매개로 하여 각각 독자적인 분야에서 인간의 발달을 촉진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표 18>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이 미국 대학에 비해 실기과목 비중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과목명은 이론과목으로 되어 있으나 수업 형태가 실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기에 나와 있는 과목명만으로 이론과 실기의 비중을 가늠하기란 어렵다. 사범계열 학과에서 실기과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추후에 면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또한 양성대학 미술교육과에서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의 편제 비율을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한 후속 연구로 유의미한 내용이 될 것이다.

<표 18> 공주대 · 교원대 · 오하이오주립대 ·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이론 · 실기 비율 비교¹⁹⁾

구분	공주대		한국교원대		오하이오주립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과목	비율	과목	비율	과목	비율	과목	비율
이론	11	21.2%	13	30.2%	21	75%	16	69.6%
실기	41	78.8%	30	69.8%	7	25%	7	30.4%

4. 교육실습의 질적 · 양적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서 교사들에게 많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용을 이해하고 단순히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학교 및 교실 환경과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 · 조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업을 기획 · 운영하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실천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Marsh & Willis(2003; 박영주, 2008, p. 196 재인용)는 세심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교사가 그것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교실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강조

19) 노던일리노이 대학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이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제외하였다.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과 표현능력을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춰 재구성하는 과정은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실습을 통해서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장 경험이 교사 양성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여도는 교사 양성 기관과 실습 학교가 충실히 준비되어 있고, 교사 양성 기관과 실습 학교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을 때 향상될 수 있다. 즉 교사 지망생이 교수 실습 이전에 전공과목 및 교수 방법 등을 잘 익히고 교실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대학에서 수강한 내용과 현장 실습의 제반 부분들을 통합시켜볼 기회가 주어질 때, 그리고 교사 양성가와 협력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적절한 연수를 받을 때 현장 실습의 기여도는 제고될 것이다(OECD, 2005).

현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대학 4년 동안 배운 미술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고 현장에 맞는 다양한 고민들의 진행을 위한 환경을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학 4년간의 과정은 유명무실한 내용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는 현장 실습 경험의 기간이 짧고 교사 양성의 수강 과목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교사 지망생들은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교실에 적용시키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3, 4학년에 실시되고 있는 실습을 2~4학년 단계에서 교육과정에 맞게 나누어 실시하고, 교육실습 최소기준을 현재의 3학점에서 더 높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 수석교사와 대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해 수석교사의 현장성이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의 능력을 예비교사에게 전수함으로써 양성기관과 학교현장 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신규발령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정식 교사가 되기 직전 교사로서의 자질을 다듬고 학생과 학교행정 등의 현장성을 미리 경험해 보는 과정의 중층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5.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

미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위계화 하는 과정은 양성대학 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미술교육과 내부적으로 교과를 풍부하게 교수할만한 인적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앞서 제시한 여섯 가지의 과목 분류 준거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더라도 교과를 전문적으로 교수할만한 인적자원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를 답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교수의 전공에 따라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져 왔던 우리나라의 전례를 감안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준엄한 기준이 적용되고 교수진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예비미술교사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 경력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양성대학의 교

수 인력에게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수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학교 현장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현장’ 중심의 고민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매년 수업내용의 변화 없이 단지 과목의 명칭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수들의 궁여지책이며 미래의 교사를 책임 있게 양성해야 할 양성대학의 무책임함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사사로움이 아닌 국가 교육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한 우리나라 양성대학의 미래가 우리 교육의 미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매년 다른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업내용이 진행되므로 인해 다른 과의 수업을 기웃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교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전공과목을 확보하기에 앞서 내실 있는 전공 수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교수진의 내부적 반성으로부터 해결지점을 찾아야 한다.

Ⅵ. 결론

미술교사의 역할은 학습자 스스로 개성적인 표현방법을 찾아내고 미적경험을 통해 미적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학습자는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갈 뿐만 아니라 미적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학교의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학습자에게 자신의 삶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미술의 세계를 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술교사는 미술 제반의 학문적 지식과 실기능력을 갖추고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실기 방법을 습득해 나가야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목표가 불분명하고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백순근, 2007; 이인제 외, 2008 재인용)에서 예비교사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술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사의 조건을 명료화함과 동시에 그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술교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대학에서 교육해야 할 예비교사의 자질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그들의 성장을 위해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가와 관계가 있다. 즉 양성대학 교육과정 개설준거 및 전공기초과목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대가 요구하는 미술교사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미술교사는 예술가가 아니라 교육자이다. 자신의 예술성에 대한 끊임없는 발전을 목표로 하는 예술가와 달리 교육자는 학문적 가치와 미술적 소양을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미적감수성의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광범위한 교과지식의 내용을 선별·해석하여 학생들에게 미적체험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함으

로써 그들의 미적탐구를 도와주는 교육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양성대학 미술교육과는 신뢰할만한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예비교사의 능력 신장을 위한 장치가 미흡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기초연구로서 이후 양성대학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계의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성열(2007). 교사자격 기준의 설정: 명료화와 제도화. **열린교육연구**, 15(3), 27-53.
- 김영석(2008). 과목교육학의위상과 교원양성대학의 구조. **사회과교육연구**, 15(2), 23-35.
- 김황기(2003). DBAE: 어제와 오늘. 한국미술교육학회 편,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pp. 61-88). 학지사.
- 박영주(2008). 미술교사의 수업계획능력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2(1), 191-208.
- 박은덕(2004). 중등미술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현황 분석. **미술교육논총**, 18(3), 103-124.
- 박은덕(2005). 중등미술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미술교육논총**, 19(1), 127-156.
- 손지현(2009). 예비교사를 위한 시각문화 미술교육과정 분석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술교육논총**, 23(2), 31-58.
- 안희숙(2003). 체육교사 양성 및 임용 제도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양운정 외(2005). 국가수준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탐색.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 연구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 외(2008).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표시과목 「미술」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08-6-21.
- 이흥구, 유한구, 장성모(2003). **교육과정이론**. 교육과학사.
- 임정기, 이성도, 김황기(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 유태인(1979). **전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장상호(2007). 교육에 대한 개념과 어휘의 해체. **교육원리연구**, 12(1), 31-64.
- 장석우(1990). 예비교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2000년대의 훌륭한 교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세미나자료집. 전국사립사범대학교교수협의회 · 전국사범대학장협의회.
- 정현일(2009). 커뮤니티 중심의 미술교육(Community-Based Art Education). **미술교육논총**, 23(1), 35-70.
- 황정규 외(1995). **교원교육개혁을 위한 종합연구**,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대통령 보고서Ⅱ(2006).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개선방안**.
- 지카다 마사히로(近田 政博)(2004). 일본과 홍콩에 있어서의 고등 교육과 교원양성. **나고야(名古屋) 고등 교육연구**, 제4호.
- OECD (2005). *Teachers matter: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 Combs, Arthur W (1974). *The Professional Education of Teachers*. Boston Allyn and Bacon.
- Hessong, Robert. F & Weeks Thomas H (1987). *Introducing to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논문 접수 : 2009년 12월 22일 / 수정본 접수 : 2010년 2월 8일 / 게재 승인 : 2010년 2월 22일

ABSTRACT

Bas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 Focused on Art Education of Basic Major Subjects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National University -

Nam-Jung Park

(Doctoral Stud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resent circle of art education occupies a thin layer of expert researchers in art education. Besides, it does not have enough foundational studies conducted for its qualitative growth compared with other academic circles. As a matter of fact, holistic and macroscopic research on overall art education has not been actively carried out. The goal of education is to cultivate desirable social beings, and nowadays, it has far more interest in fostering cultural social beings. The expertise of art teachers mirrors simultaneously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 time as well as educational philosophy that is consistent regardless of tim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ertise of art teachers and the curricula of universities for fostering teachers and also examined the problems of basic major subjects presently operated in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This was initiated from the idea that the art education curricula of art educatio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institutes of fostering secondary art teachers in Korea, were not well-structured enough to cultivate art teachers with expertise.

The current curricula of Korean universities are organized with subjects divided into pedagogics, subject content education, and subject matter education. Generally, this theoretical classification of pedagogy is mostly agreed, but it is also an obvious fact that the classification is too broad for each department to use when it opens its major subjects. 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criteria to divide subjects in order to improve the substance and quality of major subjects, and the criteria should be the standards to prepare the major subjects. The long absence of criteria for opening major subjects has been the obstructive factor in establishing major subjects with quality and even has produced a serious situation to tacitly accept the intervention of rights and interests from sectors other than education.

Accordingly, in order to structuralize substantial basic major subjects for

cultivating art teachers, this paper suggested six criteria for opening basic major subjects: 'subjects to improve subject matter-related expertise', 'subjects to enhance practical skills', 'subjects to acquire art teaching methods', 'subjects to accept the contemporary demand', 'subjects to cultivate field adaptation', and 'sciences related with subject matters'. Moreover, based on the criteria, this study also analyzed subject matter education and subject content education, the basic major subjects of art educatio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2009. The results gained from the analysis process are suggested here as methods to foster future teachers with substance in art education afterwards.

This article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subject to the concrete and sensitive issue that has not been discussed in art education for a while and lays the foundation for follow-up researches.

Key words : basic major subject, classification standard, university of fostering teachers, curriculum